

광주FC 축구전용구장에 윈 육상트랙?

최영환 시의원 "육상 트랙 그대로 두고 공사 의미 퇴색"
이경호 시의원 "시티투어 버스 현금만 결제 이용 불편"

광주시가 조성하는 광주FC 축구전용구장이 '반쪽 축구전용구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광주 지역 관광 자원을 알리는 시티투어 결제가 현금만 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영환(민주·비례) 의원은 13일 시의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에 있고 있는 축구전용구장이 육상 트랙을 그대로 남겨 축구 이외의 다른 경기에 활용할 계획에 대해 축구전용구장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로 인해 홈구장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 했다. 2015시즌 상반기 동안 목포에서 홈경기를 치러야 했다. 154억을 들여 공사 중인 축구전용구장은 7000석 규모의 관람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본부석은 2019년말 완공 예정이고 7000석의 관람석 설치에 2월 중 완료 예정이다. 2020년 본예산 10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3000석은 언제 설치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축구전용구장을 홈경기장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K리그1 경기 규정에 따라 시즌 개막 30일 전까지 경기 개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관객석의 경우 약 15

일 전에 설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시설 확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의회 이경호(민주·북구 2) 의원은 "광주시 시티투어는 온라인 예약으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카드 소지자는 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티투어 버스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없어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 야심 차게 준비한 남도패스 카드도 무용지물이다"고 질타했다.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홍일(민주·동구1)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대비 1.1%에 불과하다"며 "광주시에 관광정책을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비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1.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시의 외국인 방문객 비율은 전국 대비는 물론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관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광 혁신 전략에 맞춘 나뉘주기식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의향, 여행, 미향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예술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은 이날 광주시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시민자전거 보행로를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목포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13일 오후 목포시 근대역사2관 앞 소공원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행사에서 징용 피해자 박정규 씨 등 참가자들이 노동자상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민의 성원으로 제작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전국에서 여덟번째로 세워졌다. /연합뉴스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 본격화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예산 반영
서측 배후단지~울촌산단 2.1km
전남도가 추진중인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13일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900억원이 전

액 국비인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2.1km의 도로를 신설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울촌산단까지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바 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여수와 광양의 기존 수송 거리 16km를 2.1km로 단축하게 된다. 광양-여수-순천 등 광양항 인근 3개 시의 물류 비

용을 줄이고, 여수 국가산업단지·울촌 산업단지·해동 산업단지·황금 산업단지 등과 광양항 배후단지의 생산과 고용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광양항 인근 산업단지의 연간 물동량은 200만톤으로 앞으로,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여수 공항 접근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 8월 나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5년 만에 통과하면

서 사업비 1596억원 가운데 2020년 21억원을 배정받기도 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2020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적극 대응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인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양항 발전전략으로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 세종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일부에 대해 항만 배후단지 지정과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섬 응급환자 수송 헬기착륙장 건설 지지부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전남 섬 276개 지역에 응급환자 수송에 필요한 헬기착륙장 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악한 재정현편에도, 이대로라면 야간에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착륙장 건설에만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가고 싶은 섬', '머무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목포 3·민주) 의원은 이날 전남소방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응급헬기 이·착륙장 조성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남지역 276개 섬 중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곳은 70곳에 불과한데, 최근 4년간 전남도가 조성한 헬기장은 12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1년 평균 3개소를 신설한 것인데, 이 추세대로라면 50년이 걸려야 276개 유인도서에 응급 의료헬기 인프라가 구축될 처지라는 얘기도. 최 의원은 "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전남지역 응급의료헬기가 오는 2022년까지 6대로 늘어나고 대형화되는 만큼 재정현편 탓만 하거나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종합대책을 수립, 과감한 투자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담양 보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불법 투기행위 근절 2024년까지

전남도는 13일 담양 고서면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자가 상수를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춘리 일원 1.3km²,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행 방

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서면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한 선진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 2만5460개 제공

올해보다 25.7% 증가

광주시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고 13일 밝혔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63억9800만원을 투입해 2만546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올해 예산 610억3400만원에서 253억 6400만원(41.5%), 참여자 수 2만253명

에서 5207명(25.7%)이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2만1000명, 시장형 2610명, 사회서비스형 1100명, 인력파견형 750명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은 근무 중인 사업 수행기관에 22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내년 신규 참여 희망자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2019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2669t 매입

광주시는 15일 광산구 임곡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매입 총물량은 2669t이다. 품종은 신동진, 새일미 등 2가지다. 매입가격은 수

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3만원으로, 수매 즉시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에 정산한다. /김형호 기자 khh@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